

머리글 송정섭 시몬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큰 돌과 작은 돌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수도승 앞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승은 두 사람에게 '일단 하느님 앞에서 참회부터 하고 오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너무 큰 죄를 지었던 일을 떠올리고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며 울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생각해 보니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승이 두 사람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전자에게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들고 오라.' 했고, 후자에게는 큰 자루 하나를 주며 '작은 돌을 가득 담아오라.'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돌을 가져오자, 수도승이 이제 다시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큰 돌 하나를 가져온 사람은 제자리에 돌려놓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돌이 무거워 힘들기는 했지만, 제자리가 어디인지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 여러 개를 담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돌을 각각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승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는 건, 이 돌과 같은 것이다. 큰 죄는 분명히 기억하고 되돌리고자 해볼 수 있는데,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들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조차 기억할 수가 없다. 뉘우침도 없이 죄에 무더지고 익숙해진다. 너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지만,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죄들이 네 영혼에 쌓여 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말하면서, 정작 너 자신은 작은 죄들에 묶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성찰과 참회의 시간입니다. 타인의 허물이 아닌, 나의 허물을 보는 시간입니다. 영적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며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양심의 소리에 둔감해지고, 타인의 잘못만을 비난하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성찰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인지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저 묵묵히 선행과 희생을 실천하며 자신의 죄를 기워 닦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노력했던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의 평가에 맡깁니다. 복된 사순 시기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1월 5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승민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교정시설은 누군가는 후회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잘살아 보고 싶다는 작은 마음을 품고 있는 곳이다.”라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아담보다는 ‘오히려 늦지 않았다.’라고 다독이며 하느님께서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와 나란히 걸어주시기를 청한다.”라며 교정사목과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고봉중고등학교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설 내 촬영 촬영 금지로 준비하고 함께 해주신 살레시오회와 봉사자들 사진)

1월 7일(수)~9일(금) 고봉중고등학교에서 겨울신앙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38명의 청소년과 ‘이웃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살레시오회의 신부님과 수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전체 봉사자 피정



1월 21일(수)~22일(목) 1박 2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양지영성교육원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피정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루카 15,6)”라는 주제로 前 춘천교구 교정사목위원장(現 춘천교구 가톨릭회관장) 김학배 안젤로 신부의 강의와 각 교정시설 봉사자 평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한 봉사자들은 너무 추운 날씨였지만,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피정을 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번 피정으로 인해, 2026년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박지니 데레사 베네딕타 /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봉사자

딱, 딱, 딱, 딱따그르르.

눈을 감고 있으려니 숲속 작은 사찰의 툇마루가 떠오릅니다.

교정시설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복음 나누기’ 시간입니다. 신자 예닐곱 명이 돌아가며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소리내어 읽은 후 감상이나 신앙생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불교 모임도 같은 시간이라더니 옆방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과 목탁,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를 들으며 불경을 읽어도 이런 느낌이 들까요.

2월의 어느 금요일, 처음 이곳을 찾던 날을 기억합니다. ‘먼 곳’에 있는 ‘낯선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봉사 첫날, 집을 나서기도 전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봉사자 교육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눠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뺨뺨할 텐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느라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길 안내를 여러 번 확인하고도 버스를 잘못 탔고, 목적지에 도착하고자도 바로 앞에 있는 입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뜬 소경이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앉아서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거나 가톨릭 관련 영상을 볼 뿐, 뭘 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좋은 친구들을 얻은 기분입니다. 종종 제대 봉사를 오래 해 온 자매님 곁에서 거들며 제대 차리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제는 봉사 전달엔 조금 설레기도 하니 첫날의 마음졸임은 헛걱정이었습니다.

복음 나누기가 끝나고 방을 나서는데 “오후에 뵈요.” 하고 형제님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 화살기도를 올립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딱따그르르’ 목탁 소리 박자 삼아 그레고리안 가락에 따라 복음을 읽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살래살래 고개를 까딱이는 모양새가 즐거워 보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4,27)

한 번의 용기, 한 걸음. 필요한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 아이들”

- 성피해 청소년의 변화 -



박경진 루치아 / 더품다교육공동체

● 청소년들은 왜 그랬을까?

서울의 작은 동네. 언덕길에 있는 2층집.

이곳은 제가 매주 방문하는 청소년 보호시설입니다. 주소도 알려지지 않은 이곳은 성피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밥을 먹고, 잠을 자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집입니다.

시설에서 만나는 청소년 중에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성인에게 성피해, 즉 폭력과 착취를 경험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들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묻곤 하지만, 아이들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시간은 대부분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누군가는 폭력과 방임 속에서 자랐습니다. 외롭고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줄 어른이 없던 아이들이 대부분으로, 사랑에 대한 결핍에 사랑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괜찮다. 예쁘다.”라는 말을 건네는 성인을 통해 아이들은 잠시 숨을 돌리며, 그 관계가 착취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아이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 시설에서 마주한 아이들의 모습

시설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 ‘성’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성피해로 인한 상처로 입을 굳게 다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태도 뒤에는 공통으로 깊은 외로움과 단단한 방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은 즐거움이나 존중의 경험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고, 살아 남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지켜왔습니다. 아이들과 1:1로 만나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에 대한 지식만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고, 밥을 먹으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먼저였습니다. 때로는 몸을 해하는 아이를 향해 걱정과 잔소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쌓인 후에야 그들이 경험한 진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성’은 불편하고, 싫고, 아픈 경험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해도 되는 권리, 불편함을 느끼는 감각을 믿어도 된다는 사실, 상대의 요구보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천천히 확인해 갑니다.

● 변화의 순간들

어느 날 한 아이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삶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은 작지만, 회복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다시 흔들리고, 위험한 관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이들은 이전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싫다고 말했어요.”

“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진짜 사랑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은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작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완벽히 상처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몸과 마음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삶,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멈출 수 있는 삶,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삶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장 중이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아픈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아이들이 분명히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착취당했던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성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의미를 찾아가는 어른.

좋은 어른의 삶을 살아내며 보여주는 어른.

그것이 제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도하며 언덕길을 오릅니다.



멘토를 찾습니다 (1)

장선숙 교감 / 의정부교도소

서울에서 잠시 함께 근무했던 인연으로 아주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사 미결 수용동 근무자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수용자의 고충을 조곤조곤 들어 주며 성실하게 근무하던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침 예전에 내가 진행했던 교육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공무원이며, 교육장, 교육강사님들을 통해 제 흔적을 보게 된다고 하며 좀 더 자주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 긴 안부를 나눴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교도관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선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을지, 계속한다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수용자, 아니 출소자가 있는데 이렇게 연락하며 지내도 되는지, 그녀가 사회에 잘 정착하게 하도록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후배가 관심이 있던 OO는 의정부에서 수용동 청소를 아주 야무지게 했었기에 몇 년이 지났음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다시 서울에서 수용동 청소부를 하며 인연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OO는 음악을 전공했었고, 서둘러 진행했던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린 딸을 키우며 엄마와 함께 열심히 살았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하나가 마무리되어 수용 생활에 적응할라치면 추가 사건이 접수되어 형기가 길어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할 법도 한데 꾀꾀하게 4년을 버텨 냈습니다.

후배가 처음 용기 내어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 제가 아는 OO라 반가웠습니다. 뜻밖에 가석방 혜택을 받았고,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호텔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각 호실 비품 관리며 수리해야 할 곳은 없는지, 간단한 수리는 직접 똑딱 고치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사전·사후 보고하고, 할 일을 지시받으면 처리 후 자세히 결과 보고했다고 합니다. OO가 분식집 창업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도 가게 휴무일엔 호텔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건으로 기본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도 안 다녀온 젊은 여성이 씩씩하고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예뻐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수용동 청소부를 하며 사전·사후 보고와 시설 보수팀들 작업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간단한 것들 고치고 그렇게 체득한 것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장님, 출소자 중 하나이며, 수용자 중 하나일 텐데 특별히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뜬구름 같은 돈을 쫓던 바보 같은 OO가 아니라 직접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면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바닥을 쳐 봤으니 차근차근 올라가겠습니다. 믿어 주신 만큼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OO가 되기 위한 첫 실천은 다이어트였습니다. 허영과 나태로 찌운 지방 덩어리들을 떼어 버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뛰겠다고 악착같이 군살을 빼더니, 제 앞에 나타난 OO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이라기보다는 4년이 넘는 기간 버텨 내고, 엄마와 딸을 지켜 내기 위해 애쓴 흔적들 같아서 짠했습니다. 고맙고, 뭉클하고, 대견하고, 안쓰러운 OO를 안아 주었습니다. 월급만으로 세 식구 생활이 어려워 창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산까지 한 자신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해 줄 곳은 없었습니다.

후배는 OO랑 둘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게 자문하곤 했는데 OO의 딱한 사정과 후배의 노력을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과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님께 설명하였습니다. 취업창업업무 담당자도 아닌 교도관이 출소한 OO를 돕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고, 이런 경우 사회복귀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짐을 알고 있는 본부장님은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진들과 협의하여 OO를 한번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낮선 길에 나서는 OO를 위해 후배는 연가를 내어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OO의 절박한 상황과 열정과 실천 의지, 그리고 그런 OO를 도와주려는 후배의 진심은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지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충청지역까지, 창업자금에 보태어 생계비 지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분식점 개업에 맞춰 함께 가려고 했는데, 각자의 사정이 있어 시간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연기 끝에 나풀나풀 눈이 내리는 따뜻한 어묵 국물과 김밥이랑 떡볶이가 생각나는 날, OO네 분식집에 갔습니다. 새로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 앞에 아주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매장엔 채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 두 개, 개업 축하 리본 달린 화분 두 개, 매장과 주방은 가림막 하나 없이 완전 노출 상태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에서는 최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했으나 분식집엔 필요한 게 너무 많았고, OO는 그런 부족함을 무리해서 채우기보다 중고장터에서 구매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채워 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적당히 내려앉은 탁자 위에 크리스마스를 닮은 크고 작은 포인세티아 화분을 올려 두니 한결 다정해 보였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본 글은 장선숙 교도관의 저서 『왜 하필 교도관이야?』에 수록된 「멘토를 찾습니다」를 저자의 동의를 받아 연재합니다.

담장 안 이야기



한 송이의 꽃에도 흥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떨어지는 꽃잎 하나에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어리함의 모든 장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꽃 한 송이, 꽃잎 하나에도 이런 마음일지 …… , 지난겨울 동안 언제나 변함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더욱 순환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병오년 서해 벽두에
김 [] 씨 오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최고수(사형확정자) 형제님이 정민하 신부님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3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행사 알림


- 2월 9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2월 10일(화)~11일(수)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 / 성앵베르센터
- 2월 20일(금) 제35차 이사회 / 교정사목 센터
- 2월 25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카카오톡 채널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12/16~26/01/15)

2025년 12월~2026년 1월에는 김일웅, 박철희, 은승희, 이명숙, 김영욱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Roser, 가톨릭청년성서모임, 김기환, 김선, 김소정, 김재홍, 박완세, 양동윤, 정경욱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